2025년 9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증시, 외국인이 돌아올까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7~9월 외국인 대거 이탈한 인도 증시

인도 증시는 7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FPI)의 대규모 순매도로 단기 부담이 가중됐다. 대미 관세 충격과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에서만 약 70억 달러가 순유출됐으며, 달러/루피 환율 급등 또한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며 증시의 단기 모멘텀을 약화시켰다. 한편, 동기간 SIP를 중심으로 한 로컬 개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어지며 외국인 이탈의 충격을 흡수했다. 이러한 로컬 자금의 뒷받침 덕분에 지수 하단은 제한적이었으나, 본격적인 반등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복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미 연준 금리 인하로 외국인 자금 흐름 반전될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9월 FOMC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도 유효해 외국인 자금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신흥국 전반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달러/루피 환율 역시 과도한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 변동성이 완화되어 외국인 자금 재유입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프랑스 재정 불안, 대미 관세 리스크, 연내 인하 횟수 제한 가능성 등 달러 약세를 제약하는 변수들이 상존해 외국인 자금의 본격 유입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인도의 정책 모멘텀과 견조한 펀더멘털은 증시에 대한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GST 2.0 개편은 세율 단순화와 인하를 통해 소비 여력을 높이는 조치로, 축제 시즌과 맞물려 내수 모멘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미 관세로 인한 수출 충격을 일부 흡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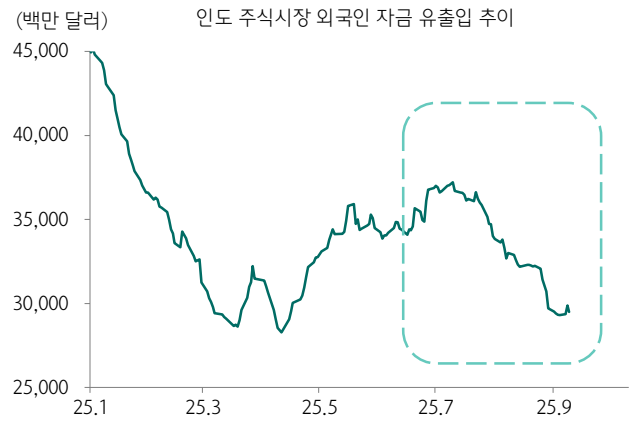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 매력 강화될 전망

결론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시 글로벌 유동성 개선과 정책·내수 기반이 결합되면서 인도 증시는 점진적으로 투자 매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회복의 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도표와 정책 경로에 대한 신호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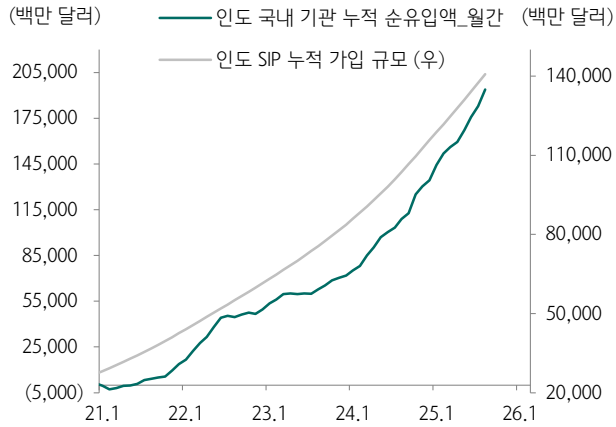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로컬 개인, 기관 자금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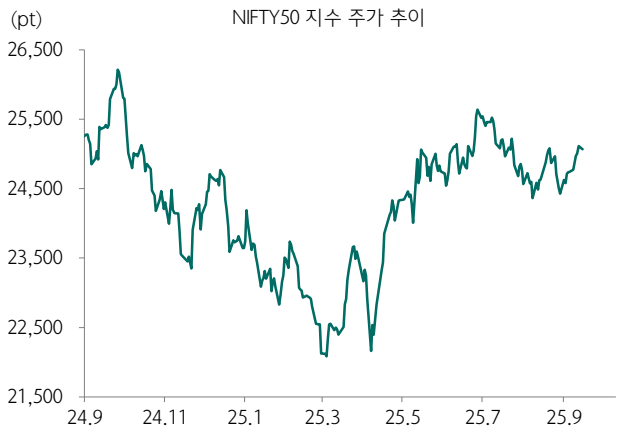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달러/루피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